



2025년 / 1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22일(수) 16시 : 사무국 주간회의
- 1월 23일(목) 16시 : 마을기록화 편집회의

**■ 연구원 소식**

**- 신규 회원 안내**

이번 주에도 새로운 식구가 연구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방윤혁 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변주승 원장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된 방민혁 회원은 한국 탄소융합기술원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신 후 현재 코웨이엔텍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코웨이엔텍은 국내 물 산업의 구조를 재편성한 코웨이와 수처리 플랜트의 역사를 만들어 온 그린엔텍이 합병해 만든 기업입니다.

수도권 지부에서 회원들을 현장에서 자주 자주 뵙길 소망한다는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 2025년 회원의 날 안내(3월 29일~30일)**

1월 11일 우리 연구원 정기 이사회에서 2025년부터 회원의 날과 개원기념식을 분리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의 날은 3월 29일~30일 이틀동안 계룡산에 자리한 동학산장호텔에서 열리며 개원기념식은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 온 회원의 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신청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출발하지 못한 목포행 완행열차 - 1960. 1. 26.

1960년, 그 해 설날은 양력으로 1월 27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족의 대이동'은 매한가지라서 그 해에도 서울역은 설을 쇠러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요즘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이야 설 한달 전에 인터넷이나 현장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차분하게 당일 역에 가면 되지만 1960년 당시에는 서울역 매표소에서 줄지어 선 채 표를 사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

서울역은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로 가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총 집결지였다. 당시 그 아수라장의 귀성전쟁에 비하면 요즘의 귀성전쟁은 "어 사람이 좀 많네" 정도의 가벼운 러시아워 수준일지도 모른다.

1960년 1월 26일은 그런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날이었다. 내일 고향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귀성전쟁에 뛰어든 불퇴전의 전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울역을 메우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신문기자는 아래와 같이 기억한다.

**"1960년 1월 26일, 이 날은 음력 선달 그믐날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서울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시골로 향하는 귀성객들을 스케치한 후 신문에 쓸 사진들을 마감하고 나니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회사로 돌아왔는데 웬지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판매하는 기차표는 700여 장이 남았는데 이를 구입하려고 줄을 선 승객들은 대충 잡아도 1,500명은 훨씬 넘어 보였다. 표를 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 승객들을 헤집고 두 번째 개찰구 쪽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우당탕'하며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개찰구 너머에 서너 사람이 쓰러지며 인파가 계속 밀려들고 있었다. 좁은 개찰구에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 계단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압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사고는 서울발 목포행 밤 10시 40분 호남선 601열차가 서있는 제3홈 계단과 통로에서 발생했다. 개찰구를 넘어 플랫폼으로 향하니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한국일보 2011년 1월 13일, 정범태의 사진으로 본 한국현대사)

훗날 그는 회고에서 특종을 위해 사람을 구하는 대신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날 참극의 희생양이 된 고인들의 명복도 제대로 빌지 못했다 이야기했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그날의 참사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서울에서 10시 50분에 떠나는 호남선 열차의 표 판매량은 평소의 세 배였다. 철도청이 귀성 대목을 맞이하여 입석표도 동남만큼 표를 팔아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을 태우려면 당연히 기차를 더 연결해야 했다. 객차들을 부산하게 연결하여 완성한 시간은 불과 출발 5분 전. 결국 출발 5분 전에 이르러서야 개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4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역무원의 거친 목청과 통제 앞에 육상 선수 스타트 자세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개찰 신호와 함께 개찰구를 향해 내달았다는 뜻이다.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는가.

좌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맹렬하게 달렸다. 좌석이 있다 한들 뒤늦게 탔다가는 좌석 근처도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두 발로 버티기는 고문을 당해야 할 판이었다. 노약자들은 버둥거리며 뛰었지만 젊은이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때 계단 한쪽에서 한 명이 크게 비틀거리더니 허우적거리며 넘어졌다. 발을 헛디딘 것이다. 한겨울이었고 계단 곳곳엔 얼음도 맺혀 있었기에 넘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날 사고로 31명이 압사당하고 4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고향에 가고자 목포행 완행열차에 오르려했으나 그러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